



광주 온 안철수 “국민이 이긴다” 지난 17일에 이어 24일 다시 광주를 찾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에서 시민들에게 두 손을 들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安 반전이나 ... 文 굳히기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깜깜이 선거’ 1주일 앞...이변주가 ‘분수령’ 안철수, 두번째 호남 유세 ‘DJ정신 계승’ 대역전 드라마 시동 문재인, 오늘 광주·전남 공약 발표 ... 지지율 5% 더 끌어올리기

### ‘선택 2017’ 대선 D-14

5·9 정미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대선 판세의 흐름이 가닥 잡힐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야 대선 주자 진영에서는 지지층 결집과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2·3·4·5면> 이번 주말이 지나면 대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데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면서 사실상 ‘깜깜이’ 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4일 야권의 ‘심장’인 호남을 찾아 대역전 드라마를 펼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대선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7일 전주와 광주를 찾은 뒤 1주일 만에 다시 호남으로 왔던 것은 이날 목포와 나주, 광주를 거치는 ‘국민 승리 유세’를 통해 “호남의 ‘미래 20

년 먹거리’를 만들겠다. 그것이 김대중 정신이고 호남정신”이라며 자신이 강점으로 내세워온 ‘미래’와 DJ 정신 계승을 부각시켜 지지를 호소했다. 호남 국회의원들도 대거 지역구로 내려가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박지원 삼일공동선대위원장과 천정배·정동영·주승용 공동선대위원장은 전남에서, 박주선 공동선대위원장은 광주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호남 의원들은 오는 29일까지 지역 표심 잡기에 ‘올인’한다. 이는 호남 민심에서부터 반전의 모멘텀을 찾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당은 최근 ‘안풍’(안철수 바람)이 잠잠해진 것과 관련, 당내 경선 이후 지지율 급상승에 따른 조정이며 이제 바닥을 친 상황이라서 충분히 반전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민심의 저변에 깔린 숨은 표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를 반

영한다면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의 접전 양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내에 안 후보가 어느 정도 상승의 발판을 마련한다면 선거 막판 충분히 대역전극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특히, ‘돼지 발전제’ 논란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입지가 좁아지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당내에서 단일화 압력에 시달리고 있어 보수 및 영남 표심이 결국 안 후보로 흡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북한 인권결의안 처리 논란과 관련, 민주당이 이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고발하면서 안보 이슈가 커지고 있는 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 초·중 통폐합 본격 추진 ▶7면
- 최진석의 老莊의 생각
- ⑤ 문명은 용기의 소산이다 ▶18면
-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전망대 ▶20면

당내에서는 인기 단축 개헌 등 판세를 뒤흔들 만한 반전 카드 마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대세론이 다시 형성됐으며 이번 주말까지 5%포인트 정도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 과반 지지에 접근, 사실상 승기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색깔론 공세와 안보관 시비 등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상대적 우세를 보인 TV 토론 등을 통해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호남 민심 다지기에도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친다. 25일에는 선대위 차원의 업그레이드 된 광주·전남지역 공약을 발표하는데 이어 문 후보도 이번 주말 내에 호남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광주·전남 지자체·시민단체, 대선공약 채택 요구 봇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역 각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현안사업에 대선공약에 포함하기 위한 물밑 경쟁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6면> 특히 이번 대선이 호남을 기반으로 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구도로 구축되면서 ‘대선공약=사업 실현’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시·군 단위 자치단체간 공약 채택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을 기억하는 최선의 방법은 옛 전남도청을 원형 복원하는 것”이라며 옛 도청 원형 복원에 대한 19대 대선 후보들의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5·18 시민군이 활동했던 외부공간과 도청 본관·별관·민원실, 상무관, 경찰청 등 보존 중인 건물 내부의 원형을 복구해 그 자체를 콘텐츠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대책위의 최종 입장이다. 전남 동부권 6개 유족회로 구성된 여순사건 유족협의회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도 이날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특별법’ 대선공약 채택과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규명 및 위령 기념사업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마련을 주장했다. 장성군은 최근 전남도의 대선공약과는 별개로 지역숙원사업인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설립’을 일부 정당의 대선공

약으로 채택시키는 성과를 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 대선공약 채택을 위해 올 들어 매주 ‘국립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전략적 유치 방안을 모색한 끝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얻었다. 장성군은 국민의당 등 다른 정당과도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다. 순천시도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대한민국 경량소재 클러스터 단지 조성 및 구석기~조선시대 역사유적지 관광벨트 조성, 대한민국 미래형 직업훈련 집적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을 대선공약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순천시가 제안한 공약 중 대한민국 경량소재 클러스터 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수시도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와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화태~백야연륙·연도교 건설, 여수공항 부정기 국제선 운항허가 및 활주로 확장 등 13개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요구한 상태다. 앞서 목포상공회의소(회장 김호남)도 최근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남 경제단체들과 광주전남연구원 등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목포간 남해안고속도로 조기건설 ▲한·중 열차페리운항 국가사업 추진 ▲광주 송정-목포간 고속철도 사업 등 숙원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진표·김형호기자 lucky@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文측, ‘北 인권결의안’ 관련 송민순 前 장관 고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24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관련 송 전 장관은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문 후보측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

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 등을 검토해 수사 부서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치인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4일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표결 전인 11월16일에 기관이 이미 결정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설명이 맞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생명사랑 전남  
Full of Life, Jeonnam

전라남도  
Jeolla Namdo

# 에너지수도 전라남도

에너지 대한민국의 인재도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미래도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중심도  
청정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도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허브도  
여기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전라남도에서 시작됩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향한 전라남도 에너지산업육성계획**

**에너지 신산업 육성**

-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 섬 50개 조성
- 첨단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
- 친환경 에너지타운 및 에너지시티 조성
- 스마트 에너지신기술 실증 및 연구사업 추진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 330만㎡ 규모의 '에너지기업 중심 산단' 조성
- 우수 연구/산업인력 양성
- 에너지밸리 R&D 특구 지정 추진
- 한전의 에너지신기술 실증연구 지원

**신재생에너지사업 본격 추진**

- 풍력·태양광발전 5GW설치로 에너지 30% 자립
- 서해안 대규모 송전전력망 확충
- 부생가스 활용을 위한 여수-광양간 해저터널 구축
- 해양에너지·조류발전 실해역 시험장 구축